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최 석 재** · 정 연 주*** · 정 경 미 · 홍 종 선

(성신여대 · 가톨릭대 · 고려대)

<Abstract>

Choi, Suk-jae · Jeong, Yeon-ju, Jung, Kyeong-mi and Hong, Jong-seon. 2011. The meaning of idiomatic emotion expression which can be captured by it's structure. *Korean Semantics* 35.

Emotion often explains many behaviors in our life. Besides rational reason, many behaviors result from what we have felt. Because of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express our feeling and to distinguish others' emo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idiomatic emotion expressions to see how the structure contributes to express emotion. As a result we found follow three. First, usually idiomatic emotion expression use 'Nominative noun + Predicate' structure to show emotion's spontaneous property. This type occupies nearly 70% of those idioms. Second, 'Accusative noun + Predicate' structure is effective in showing the Experiencer's activeness and the emotion's intense. Third, 'Noun phrase' and 'Verb phrase' are also used for emotional expression. They can describe some situations, but it is very rare.

핵심어: 관용구(idiom), 관용표현(idiomatic expression), 감정(emotion, feeling), 감정 표현 관용구(idiomatic emotion expressions), 심

*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o. R01-2008-000-20696-0).

** 제1저자

*** 교신저자

리(mind, mental state), 자동 구조(intransitive structure), 타동 구조(transitive structure)

1. 서론

본고는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구의 통사적 구조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는 어휘 연쇄 자체가 갖는 의미와 구조가 갖는 의미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Reeve(2001:44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일으키는 데 강한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어떠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지속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통제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영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그 영역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체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감정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나타난 반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 감정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도 있지만 대개는 밖으로 드러나므로 그 나타난 모습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은 얼굴의 표정이나, 땀과 같은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Ekman & Friesen 1975, Sommerer 2003, Lakoff 1980), 이 중 언어로 표현된 감정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얼굴 표정이나 생리적 반응과 같은 외현적 양상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언어로 직접 표현된 감정은 감정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지언어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하는지를 유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화자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임지룡 2000:693), 이는 우리가 언어 표현에 특정 구조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를 감정 언어 표현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구조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구조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 볼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구(이하 감정 표현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제3의 굳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단일 어휘인 감정동사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는 더 복잡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만나 비유적 표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미적인 면에서는 더 간접적이다. 이와 같은 감정 표현 관용구의 특징은 우리가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언어로 승화시킬 때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구성되는 단어들이 감정 표현 관용구를 이룰 때 선호되는 특정 결합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구조가 감정 표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며, 감정의 어떤 특징을 묘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의미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감정과 관련된 마음의 사상(寫像)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감정 표현 관용구의 기능

Rohracher(1976)은 감정은 첫째, 외적이거나 내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이며 둘째, 의식의 가담 작용 없이 나타나는 정신적 상태이며 셋째, 대개의 경우 어떻게 언어로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체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의 주관적인 속성은 이를 표현하는 감정동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화자와 감정의 경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인칭 제약을 갖게 한다.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작용은 타인이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는 가능하지만, ‘너는 부끄럽다’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어 하-’를 통합하여 외적 양상을 강조하거나, ‘시점 옮기기’와 같은 문법 외적 현상에 의존해야 한다(남기심 1989, 김세중 1994, 김은영 2004).

또한 우리말의 감정동사는 그 수가 많지만(안신호 외 1993: 213개, 박인조 2001: 434개, 김은영 2004: 494개) 실제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제한적이다. 3장에서 소개할 소설 말뭉치 자료의 감정동사 중 5회 이상 나타난 것은 148개인데,¹⁾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은 것이 아니지만 감정의 다양한 종류²⁾를 고려하면 그 수가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들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감정동사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데에 제한을 준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정동사를 이용해 말하는 데 제약이 있고, 또 빈도상의 제약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감정 표현 관용구는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된다. 먼저 감정 표현 관용구는 감정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감정에 따른 반응을 묘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타인의 감정을 언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표

1)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간절하다,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거북하다, 걱정스럽다, 걱정하다, 고달프다, 고독하다, 고맙다, 고민하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곤혹스럽다, 괜찮다, 괴롭다, 귀찮다, 그립다, 기쁘다, 긴장되다, 긴장하다, 꺼림칙하다, 끔찍하다, 난감하다, 난처하다, 놀라다, 놀랍다, 다행스럽다, 달갑다, 담담하다, 답답하다, 당당하다, 당혹스럽다, 당황스럽다, 당황하다, 대수롭다, 두렵다, 득의만만하다, 들뜨다, 따분하다, 딱하다, 떨다, 떨떠름하다, 떨리다, 멧멧하다, 막막하다, 만족스럽다, 만족하다, 망설이다, 멍하다, 못마땅하다, 무료하다, 무섭다, 미안하다, 민망하다, 밉다, 반갑다, 부끄럽다, 부럽다, 분개하다, 분노하다, 분하다, 불길하다, 불쌍하다, 불안스럽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비참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서글프다, 서럽다, 서운하다, 설레다, 섬뜩하다, 섭섭하다, 성가시다, 수줍다, 수치스럽다, 슬프다, 신기하다, 실망하다, 싫다, 심심하다, 씩스럽다, 쓸쓸하다, 쓸쓸하다, 아깝다, 아끼다, 아니꼽다, 아쉽다, 아찔하다, 안쓰럽다, 안절부절하다, 안타깝다, 알피다, 어리둥절하다, 어색하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억울하다, 얼떨떨하다, 억겁다, 외롭다, 우습다, 우울하다, 원망스럽다, 원통하다, 유쾌하다, 의심스럽다, 의아하다, 자랑스럽다, 자신만만하다, 조마조마하다, 조심스럽다, 좋다, 죄송하다, 즐겁다, 증오하다,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지루하다, 지치다, 짜릿하다, 짜증스럽다, 장피하다, 처량하다, 초라하다, 초조하다, 침울하다, 침통하다, 편안하다, 편하다, 행복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홀가분하다, 화나다, 황당하다, 황홀하다, 후회스럽다, 후회하다, 흐뭇하다, 흥분되다, 흥분하다

- 2) 예를 들어 홍종선·정연주(2009)에서는 감정을 19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148개의 감정동사들이 각 유형에 고루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유형에 약 8개의 동사가 포함된다. 하지만 19 유형으로 분류된 감정동사들도 각 유형의 내부에서 몇 개의 세부 그룹으로 더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동사는 그 수가 많다고 하기가 어렵다.

현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신체 반응을 진술하는 표현이어서 관찰자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언중은 경험상 이 표현이 ‘부끄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안다. 즉, 감정 표현 관용구는 주관적 심상을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반응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타인의 감정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감정 표현 관용구는 서술적 표현을 담당하는 부분에 구체적 현상을 지시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생동감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 표현의 이해와 다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화나다, 분하다’라는 표현에 비해 ‘부아가 끓어오르다’는 비슷한 의미이면서도 그 뜻이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이는 ‘끓어오르다’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면서 강한 자극과 그에 따른 격렬한 반응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감정동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 표현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감정의미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구성 어휘와 결합 구조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감정 표현 관용구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한다.

3. 감정 표현 관용구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구 표현을 수집하기 위해 소설을 대상으로 자료를 탐색하였다. 소설을 탐색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장르의 인물의 심리 묘사를 정밀하게 묘사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는 전산 작업이 용이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수록된 소설 과일을 대상으로 하였고, 저자가 모두 다른 전체 18권의 자료 중 4만 어절 이상을 갖는 것을 다시 출판연도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여 아래와 같이 총 10권으로 선정하였다.

<표 1> 감정 표현 추출 대상 소설 목록

과일명	소설(집)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어절 수
BRECO091	완전한 만남	김하기	창작과 비평사	1990	56,491
BRECO095	단한 교문을 열며	유시춘	사계절	1990	45,777
BRECO086	통도사 가는 길	조성기	민음사	1992	47,888
BRECO088	해남 가는 길	김영현	솔	1992	59,128
BRECO081	시간속의 도적	채영주	열음사	1993	49,736
BRECO080	포구	한승원	장락	1994	55,619
BRECO082	하백의 딸들	송하춘	문학과지성사	1994	57,998
BRECO078	나비, 봄을 만나다	차현숙	문학동네	1997	48,539
BRECO075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문학동네	2000	49,170
BRECO077	마이너리그	은희경	창작과 비평사	2001	45,072
어절 합계					515,418

그리고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기준과 목록을 제시한 정연주 외(2011)의 논의를 토대로, 228개의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정연주 외(2011)에서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구' 단위로서의 전형성]

- ① 결합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의 머릿속 언어 지식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어휘 차원이 아닌 구 차원에서 연구할 만한 대상으로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② 구 전체를 통해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 구를 이루는 일부 요소가 감정의 의미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결합적 관습성에 더해 의미적 관습성까지 가질 때 더 전형적인 관용 표현이라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③ 관습적으로 부호화된 의미로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특정 감정의 의미가 부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의미적 관습성을 더 높은 정도로 갖는 더 전형적인 관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감정' 의미의 전형성]

- ④ 자극체에 의해 유발되는 비의도적인 감정을 의미함: 전형적인 '감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일 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로 포함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목록을 구조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주격어³+서술어] - 163개(71.5%)

가슴 한구석이 움찔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밀어오르다, 가슴속이 부풀어오르다, 가슴에 멍이 들다, 가슴에서 피가 끓다,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뚫리다, 가슴이 뜨거워지다,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무겁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미어터지다, 가슴이 서늘하다, 가슴이 썰렁하다, 가슴이 쓰라리다, 가슴이 아리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젖다, 가슴이 찢어지다, 가슴이 축축하다, 가슴이 턱 막히다, 가슴이 텅 비다, 가슴이 행하다, 감정이 격해지다, 감정이 기울다, 감정이 뒤틀리다, 감정이 묘하다, 감정이 무겁다, 감정이 복잡하다, 감정이 상하다, 감정이 흔들리다, 골머리가 썩다,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지끈거리다, 구역질이 나다, 군침이 고이다, 귀가 번쩍 뜨이다, 귀가 번쩍하다, 기가 꺾이다, 기가 막히다, 기가 질리다, 기가 차다, 기분이 가라앉다, 기분이 팬찮다, 기분이 그렇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너털너털하다, 기분이 더럽다, 기분이 묘하다, 기분이 무겁다, 기분이 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기분이 잡치다, 기세가 등등하다, 김이 새다, 낮이 간지럽다, 낮이 나가다, 낮이 빠지다, 눈꼴이 시리다, 눈앞이 아득해지다, 눈앞이 아득하다, 눈앞이 아찔하다, 눈앞이 어둑하다, 눈앞이 어릿어릿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해지다, 눈이 뒤집히다, 눈이 빠지다, 느낌이 서늘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다리가 오그라들다, 독이 오르다, 뒤통수가 서늘하다, 뒷꼴이 서늘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마음 한구석이 차오르다, 마음이 가라앉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해지다,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멍들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식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약해지다, 마음이 졸아들다, 마음이 텅 비다, 마음이 풀어지다, 마음이 흔들리다, 머리가 서다, 머리가 터지다, 머리끝이 곤두서다,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다, 머리털이 곤두서다, 머릿속이 텅 비다, 면목이 없다, 목에 힘이 들어가다, 밥맛이 없다, 배가 아프다, 뺨이 꼴리다,

- 3)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를 기술할 때 문장 성분의 명칭을 빌어 '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격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나는 가슴이 무거웠다'와 같은 문장을 [주어 + [주어 + 서술어]]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목정수, 2005 참고). 이 때문에 문장 성분의 명칭을 빌지 않고 격 형태를 중심으로 한 용어를 채택하였다.

8 최석재 · 정연주 · 정경미 · 홍종선

벨이 뒤틀리다, 부아가 끓다, 부아가 끓어오르다, 부아가 솟구치다, 부아가 치밀다, 부아가 치밀어오르다, 비위가 상하다, 소름이 끼치다, 소름이 돋다, 속에서 천불이 나다, 속이 상하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울컥 치밀어오르다, 속이 화끈거리다, 숨통이 트이다, 식은땀이 흐르다, 신경이 곤두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신경이 날카롭다, 신경이 쓰이다, 신경질이 나다, 신물이 나다, 심사가 뒤틀리다, 심사가 산란하다, 심술이 끓다, 심장이 터지다, 쓴물이 올라오다, 앓던 이가 빠지다, 애가 달다, 애가 타다, 어안이 병병하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억장이 무너지다, 일이 빠지다, 오금이 저리다, 이가 갈리다, 이골이 나다, 이력이 나다, 입맛이 쓰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입이 벌어지다, 재수가 없다, 정신이 뒤집히다, 정신이 빠지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팔리다, 주눅이 들다, 진땀이 흐르다, 치가 떨리다, 표정이 어둡다, 풀이 죽다, 피가 끓어오르다, 한숨이 깊다, 한숨이 나다, 한숨이 나오다, 한풀 꺾이다, 할 말이 없다

[목적격어+서술어] - 58개(25.4%)

가슴을 뜯다,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다,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조이다, 가슴을 졸이다, 가슴을 쥐어뜯다, 가슴을 찌르다, 가슴을 후벼 파다, 감정에 상처를 입다, 감정을 건드리다, 거품을 물다, 골머리를 씩이다, 골머리를 앓다, 골치를 앓다, 구토를 느끼다, 군침을 흘리다, 기를 펴다, 기분을 망가뜨리다, 낮을 붉히다, 낮을 놓다, 낮을 잃다, 눈독을 들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다, 눈에 쌍심지를 쏘우다, 마음을 끌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적시다, 마음을 졸이다, 몸뭉치 바를 모르다, 몸서리를 치다, 발을 동동 구르다, 배꼽을 잡다, 소름을 돋우다, 소름을 치다, 속을 끓이다, 속을 태우다, 숨도 못 쉬다, 숨통을 조이다, 신경을 건드리다, 신경을 곤두세우다, 신경을 쓰다, 애간장을 태우다, 애를 먹다, 얼굴을 붉히다, 열을 내다, 열을 울리다, 이를 갈다, 정신을 빼앗기다, 촉각을 곤두세우다, 코웃음을 치다, 콧방귀를 뀌다, 피를 말리다, 핏대를 울리다, 할 말을 잃다, 혀를 내두르다, 혀를 차다

[부사(격)어+서술어] - 6개(2.7%)

기세에 놀리다, 마음에 들다, 뿡 가다, 손에 잡히지 않다, 악에 받치다, 쥐구멍 속에 들어가 숨고 싶다

[명사+명사] - 1개(0.4%)

깨소금 맞

(2)에서 제시된 구조별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 유형별 빈도⁴⁾

구조 유형	유형 빈도	출현 빈도	비율
주격어 + 서술어	163	335	69.4%
목적격어 + 서술어	58	128	26.5%
부사(격)어 + 서술어	6	19	3.9%
명사 + 명사	1	1	0.2%
계	228	483	100%

4.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미

감정 표현 관용구는 관용구의 하위 유형으로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 연결되는 단어들의 유형을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라고 할 때, 여기에는 특정한 유형이 선호됨이 관찰된다. 이 장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를 셋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세부 유형과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한다.

4.1. 주격어-서술어 구조를 통한 상황 묘사

<표 2>에서 제시된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별 비율은 일반적인 문형에서 나타나는 비율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감정 표현 관용구의 상황 묘사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

첫째, 감정 표현 관용구는 일반적인 문형보다 체언과 용언 모두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다. 위의 표에서 체언과 용언으로 이루어진 ‘주격어 + 서술어’ 유형과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은 전체의 96%에 이르는데 한국어의 문형을 조사한 노은희(1999)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체언과 용언이 자주 이용되는 것은 감정 표현 관용구의 경우와 같지만, 그 비율은 84%로 보다 낮다.⁵⁾

4) 구조별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는 비율 면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표에서는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다.

5) 김한샘(1999), 민현식(2003), 이희자 외(2007), 도원영·정유남(2008) 등에서도 일반적인 관용구

먼저 감정 표현 관용구가 명사구 + 서술격조사의 유형⁶⁾은 거의 가지지 않고 체언과 용언의 결합 구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은, 감정 표현 관용구의 상위 개념인 관용구가 주로 상황 묘사를 통하여 비유를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박영순(1985)는 관용구를 다양한 비유 표현 양식과 비교하였는데 이 중 은유와 관용구는 의미의 변형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은유는 사물과 사물의 공통점을 찾아 비유한다는 점에서 관용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은유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는 ‘마음’과 ‘호수’를 비교하여 호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잔잔함’ 또는 ‘차분함’을 공통점으로 찾는다. 하지만 관용구는 구성 어휘로 표현되는 두 사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구성 어휘로서는 직접 밝혀지지 않는 제3의 의미와의 공통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 ‘시치미를 떼다’는 매의 시치미를 떼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태도와 어떤 일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의 공통점을 묶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묘사는 체언 논항을 용언이 서술해 주는 구조여야 잘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치미’와 같이 체언만 가지고 있으면 대상을 언급만 할 뿐 그 사물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되지 못하며, 또한 ‘떼다’와 같이 용언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묘사되지 못한다. 상황이 적절히 묘사되려면 ‘시치미를 떼다’와 같이 체언과 용언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 표현 관용구는 일반적인 문형보다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의 비율이 더 높다. 감정 표현 관용구의 경우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은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의 두 배를 훨씬 훨씬 초과하나, 일반적인 문형에서는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의 비율은 41%에 그쳐 오히려 43%를 차지하는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보다도 적다. 또한 명사구 + 서술격조사의 유형도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는 거의 0%로 나타나나, 일반적인 문형에서는 15.7%에 달해 감정 표현 관용구의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⁷⁾ 체언과 용언으로 이루어진 구조 중에서도

의 조사에서 NV 구성(명사와 용언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한샘(1999)에서는 통계적 조사를 통하여 NV 구성이 전체 관용표현 중 88.9%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 6) ‘명사 + 명사’ 구조를 갖는 ‘깨소금 맛’은 보통 ‘깨소금 맛이이다’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감정을 표현한다. 즉 관용구 자체의 구조는 ‘명사 + 명사’이지만 문형 차원에서는 ‘명사구 + 서술격조사’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감정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감정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의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역을 취해 행위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보다는 현재의 상태 또는 상태 변화를 묘사하는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이 더 적절한 것이다.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의 감정 표현 관용구를 다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ㄱ. 가슴이 서늘하다, 골치가 아프다, 구역질이 나다, 군침이 고이다, 기분이 더럽다, 기세가 등등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머리털이 곤두서다, 면목이 없다, 부아가 치밀다, 소름이 끼치다, 속이 상하다, 신물이 나다, 심장이 터지다, 애가 타다, 어이가 없다, 열이 빠지다, 오금이 저리다, 이골이 나다, 주눅이 들다, 풀이 죽다, 피가 끓어오르다
- ㄴ. 기가 막히다, 마음이 놓이다, 뺨이 꼴리다, 신경이 쓰이다, 심사가 뒤틀리다
- ㄷ. 가슴이 뜨거워지다, 감정이 격해지다
- ㄹ.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다, 가슴에 멍이 들다, 목에 힘이 들어가다, 속에서 천불이 나다

(3ㄱ)의 ‘골치, 구역질, 소름, 신물, 심장, 주눅, 풀, 피’ 등은 자율 신경계처럼 스스로 반응하고 동작하는 것으로, 사람이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와 같은 타동 구문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기술하는 주격어 + 서술어 유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3ㄴ)의 예들에서는 동사의 피동형이 사용되었는데 ‘막다, 놓다, 꼬다, 쓰다, 뒤틀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 논항을 가져 주체의 의지가 드러나므로 감정의 무의지적 속성이 드러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문장을

7) 노은희(1999:288)에서 ‘N이 V’ 계열에 속하는 것과, ‘N이 Adj’ 계열에 속하는 것은 ‘주격어 + 서술어’ 유형에, ‘N이 N을 V’ 계열은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에, ‘N이 N이다’ 계열은 ‘명사구 + 서술격조사’에 속한다.

8) 강범모·김홍규(2009)에서도 실질어 사용 빈도 중 가장 높은 것은 서술격조사(지정사) ‘이’라고 할 만큼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 서술격조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피동형으로 바꾸어 의지적 주체를 감추고 대상역 논항만을 전면에 드러내면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이 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해진다.

(3ㄷ)은 ‘-어지다’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 발생의 의미가 더해진 경우이다. ‘가슴이 뜨겁다’, ‘감정이 격하다’는 감정 발생의 결과만을 표현하지만 ‘-어지다’형을 취하면 감정의 발생과 진행 양상을 표현한다. 이에 더해 이러한 상황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무의지적 상황은 더욱 뚜렷해진다(이관규 2002:290). 이상에서와 같이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은 감정의 무의지적 속성을 기술하는 데 유리하다.

이 외에도 이 유형이 갖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감정 표현 관용구가 상황 묘사적 구조를 취하면 감정이라는 추상적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감정동사 ‘두렵다’를 사용하면 의미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공포’의 감정을 세밀하게 구별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 ‘조금 두렵다, 너무 두렵다’와 같이 정도 부사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만을 조정할 수 있는 막연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소름이 끼치다’, ‘마음이 좋아들다’, ‘머리털이 곤두서다’, ‘오금이 저리다’ 등과 같이 그 감정으로 인한 반응을 묘사하면 청자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보다 분명히 공유할 수 있고, 감정의 세밀한 차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반응을 느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화자가 현재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 그리고 그 감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다. 임은하(1998), 김은영(2004), 권경일(2009)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감정동사는 인칭에 제약을 가져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상황 묘사적 구조를 가지면 외부 반응을 묘사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심리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매우 두렵다’, ‘그는 매우 두려웠다’와 같은 표현은 할 수 없으나⁹⁾ ‘그는 소름이 돋았다’, ‘너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와 같이

9) 물론 타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는 매우 두려운 것 같다/그는 매우 두려운가 보다’ 처

감정으로 인한 외적 반응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부아가 끓다, 어안이 병병하다, 애가 달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이 관찰할 수 없는 반응도 있지만, ‘입이 벌어지다, 진땀이 흐르다, 치가 떨리다’와 같이 외부로 드러나는 반응은 상대방의 심리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3ㄷ)은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의 확장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3ㄷ)의 감정 표현 관용구들은 주격어 + 서술어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그것만으로는 감정 표현임이 드러나지 않고 ‘가슴에, 목에, 속에서’와 같은 부사어가 전제될 때 감정 표현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경우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감정의 발생 양상에 비견할 만한 구체적 사건들에 빗대어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프다, 멍이 들다’와 같이 신체적으로 불유쾌한 상황을 감정의 양상으로 사상하는 것이다. 이때 이들이 감정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중의성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슴에, 감정에’ 등과 같이 한정된 적용 영역을 나타내는 ‘에’ 부사어가 필요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부사어가 덧붙여진 감정 표현 관용구들도 존재하게 되었다.

4.2. 목적격어-서술어 구조를 통한 주체의 능동성 높임

감정은 무의지적인 반응이므로 주로 주격어 + 서술어 구조가 유리하나, 목적격어 + 서술어 구조도 26.5%에 이른다. 목적격어 + 서술어 구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 ㄱ. 끝머리를 앓다, 군침을 흘리다, 낯을 붉히다, 뉘를 놓다, 소름을 치다, 신경을 쓰다, 애를 먹다, 열을 내다, 이를 같다, 할 말을 잃다
 ㄴ.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조이다, 마음을 끌다, 속을 끓이다, 애간장을 태우다, 피를 말리다

럼 추측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는 매우 두려워 했다’처럼 외현성의 의미를 갖는 ‘-어 하’ 구성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현적 반응 양상을 서술하는 감정 표현 관용구는 보다 객관성을 유지한 채 비1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다.

ㄷ. 감정에 상처를 입다

타동사 구문인 ‘목적격어 + 서술어’ 문형을 취하면 ‘그가 사과를 먹다’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주체가 의지를 갖고 목적어 위치에 있는 대상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된다. 그러나 (4ㄱ)에 있는 예문들은 독자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타동 구문 형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군침은 일부러 흘리는 것이 아니고, 골머리는 일부러 앓는 것이 아니다. 낮을 일부러 붉어지게 만들거나 일부러 열이 나게 할 수도 없다. 골머리를 앓고, 군침을 흘리고, 낮을 붉히는 현상 자체는 주체의 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큰 자극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목적어 + 타동사 문형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앞서 보았던 ‘주격어 + 서술어’ 문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4ㄱ)의 관용구들은 사실 (5)와 같이 표현되어야 자연스럽다.

(5) 골머리가 아프다, 군침이 흐르다, 낮이 붉어지다, 소름이 처지다, 열이 나다 ...

이와 같이 주격어 + 자동사 유형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ㄱ)과 같은 목적격어 + 타동사 문형이 사용되는 이유는 타동 구문이 갖는 의미 중 하나인 ‘주체의 능동성’ 의미를 더함으로써 감정 의미의 정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골머리가 아프다’보다는 ‘골머리를 앓았다’로, ‘군침이 흘렀다’보다는 ‘군침을 흘렸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체의 능동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타동 구문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능동성은 ‘낮을 붉히다’는 ‘화를 내다’의 의미에, ‘낮이 붉어지다’는 ‘화가 나다’의 의미에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 ㄱ. 그들은 오늘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낮을 붉혔다.

ㄴ. 그들은 오늘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낮이 붉어졌다.

(6ㄱ)과 (6ㄴ)은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낸다. 즉 (6ㄱ)은 서로 화를 내며 능동적으로 싸우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6ㄴ)은 능동적인 행위는 없이

단지 속으로 화가 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골머리를 앓다’와 ‘골머리가 아프다’, ‘군침을 흘리다’와 ‘군침이 흐르다’도 (6)의 상황과 비슷하게 대조될 수 있다. 즉 ‘골머리를 앓다’는 어떤 일 때문에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상황을, ‘골머리가 아프다’는 어떤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침’의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된 상황을 지시한다. 마찬가지로 ‘군침을 흘리다’는 어떤 것에 욕심이 나서 그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군침이 흐르다’는 내적으로 욕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7) ㄱ. 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골머리가 아프다}.

ㄴ. 영희는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군침을 흘렸다/*군침이 흘렸다}.

‘A하기 위해 B하다’나 ‘A를 하려고 B하다’와 같이 의도성이 드러나는 구문에서 ‘B하다’의 위치에는 동작성을 지시하는 서술어가 와야 한다. (7)에서 처럼 ‘B하다’의 위치에 ‘골머리를 앓다, 군침을 흘리다’가 허용될 수 있음을 통해 이러한 표현들에 ‘능동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골머리가 아프다, 군침이 흐르다’는 1인칭 주어와만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반면 ‘골머리를 앓다, 군침을 흘리다’는 인칭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골머리를 앓다, 군침을 흘리다’의 능동적 동작성과 ‘골머리가 아프다, 군침이 흐르다’의 내적 상태(변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골머리를 앓다, 군침을 흘리다’에는 능동적 동작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주어가 1인칭일 때 ‘-더-’와 공기할 수 없다는 특성도 보인다.

(8) ㄱ. *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더라.

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더라.

그렇다면 ‘주체의 능동성’과 ‘감정 의미의 정도성’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사람들은 감정 상태, 특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감정을 외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극으로 인한 감정 유발의 강도가 클 때에는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의 능동적인 감정 표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감정의 결과로 유발된 능동적인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타동 구문 형식의 사용은 유발된 감정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를 태우다’는 ‘애가 타다’보다 근심의 정도성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너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애가 탔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수용 가능한 데 비해, ‘너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애를 태웠어’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상 다소 어색하여 잘 쓰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화자는 고향을 지른다는지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지 하는 감정의 능동적 표출 양상을 관찰할 때에도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즉 화가 나서 꾸지람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그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화를 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화를 내는 사람의 ‘붉어진 얼굴’과 같이 그 상황과 관련된 상태를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서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상태를 언급하여 간접적 서술을 하면서도 다시 서술하고자 하는 상황에 주체의 능동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각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 때 타동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상황’ 자체에는 의지나 능동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타동 구문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뺨을 붉히다, 애를 태우다’와 같은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경일(2009)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를 내면적 감정 표현 관용구(예. 가슴이 뛰다)와 외현적 감정 표현 관용구(예. 입이 찢어지다)로 나누면서, 후자는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비유를 통해 관용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2인칭과 3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음이 특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가슴, 골머리, 간, 귀’ 등과 같이 명사가 지시하는 개체를 이용한 동작 표현이 가능하지 않거나 신체 내부의 기관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내면적 감정 표현을 위해서만 쓰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골머리, 애간장, 군침’과 같이 그것을 이용한 동작 표현이 가능하지 않거나

신체 내부의 기관을 지시하는 명사라 하더라도 타동 구문 형식으로 나타나면 외현적 감정 표현을 위해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ㄴ)의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감정 유발의 자극체인 경우이다. 감정을 겪는 경험주는 무의지적으로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격어 + 서술어 유형과 동일하지만,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를 부각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나는 철수 때문에 애간장이 탔어’와 ‘철수가 내 애간장을 태웠어’는 상황 자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경험주가 겪는 상황을 부각할 것인지 감정을 유발한 자극체를 부각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극체가 주체로서 등장하여 부각되면 ‘철수가 일부러 내 애간장을 태웠어’와 같이 자극체가 감정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타동 문형은 감정 자극체를 부각하고 자극체의 능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4ㄷ)은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의 확장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은 주격어 + 서술어 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전제될 때 감정 표현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의 목적격어 + 서술어 유형은 감정 경험주가 감정으로 인해 외적으로 표출되는 능동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묘사하기 위해 쓰이거나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가 타인을 향해 능동적으로 감정 유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묘사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 감정의 양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 문형보다는 특수한 용법에 속한다고 하겠다.

4.3. 예외적인 문형

적은 예이지만 감정 표현 관용구에는 다음과 같이 부사(격)어 + 서술어 문형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10) (9)는 본 연구의 탐색 대상 말뭉치에서 발견된 유형만을 제시한 것이고, 이 외에 ‘눈에 아른거리다, 눈에 밝히다, 컷가에 맴돌다, 눈에 넣다, 눈에 차다, 눈에 들다, 눈에 선하다’와 같은 예도 있다.

- (9) ㄱ. 기세에 눌리다, 마음에 들다, 손에 잡히지 않다, 악에 받치다, 쥐구멍 속에
 들어가 숨고 싶다
 ㄴ. 뿡 가다

(9ㄱ)은 모두 부사격조사에 의해서 부사어가 된 예들이다. 여기에 사용된 부사들은 대개 ‘원인’ 또는 ‘장소’와 관련되어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주눅이 들어 있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이 경험주를 아래로 눌러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채택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경험주를 주체로 하여 서술하기 위해서는 타동사 ‘누르다’가 아닌 피동사 ‘눌리다’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무거운 짐’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추상적인 ‘기세’가 ‘에’ 부사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마음에 들다’도 어떤 대상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을 그 대상이 나의 영역 속에 포함된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감정에 대한 표현임을 추상적인 ‘마음에’라는 부사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9ㄴ)은 의태 부사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감정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수한 예이다. ‘뿡’은 소리와 동시에 움직임의 양태를 묘사하는 부사로, ‘가다’와는 의미상 독립적이다. ‘마음이 뿡 하고 가다’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부터 도출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부사 ‘뿡’이 갖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마음이’를 제외한 ‘뿡 가다’만으로도 ‘반하다’라는 전체 의미를 환유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뿡 가다’의 두 어휘는 의미적으로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결합하여 ‘매력을 느끼다’라는 제3의 의미를 가져 관용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한다.

이 외에 명사 + 명사의 예는 다음의 한 경우만 발견되었다.

- (10) 깨소금 맛

(10)은 주로 서술격조사와 결합하여 술부에 나타남으로써 감정 표현에 참여한다. 명사구 + 서술격조사의 유형은 관용구보다는 은유에 더 잘 사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이 사용된 것은 특이한 것이다. ‘깨소금 맛이다’는 ‘고소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고소한 맛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어떤 상

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기술한다. 즉 유쾌한 맛을 느끼는 상황과 유쾌한 기분을 느끼는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함으로써 맛을 묘사하는 표현을 감정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0)은 명사구 + 서술격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다’와 같이 개체와 개체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은유 표현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상황을 서술하는 데에는 명사구 + 서술격조사 구조보다는 체언 + 용언 구조가 유리하므로 이 구조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빈도는 높지 않다.

5. 결론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이성적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행동이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수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감정은 무엇이고, 타인에게서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현재의 마음 상태는 물론, 이후에 벌어질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단어를 제3의 균은 의미로 사용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는 특정한 구조가 선호되는데 이들에 대해 관찰하면 우리가 감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언어로 승화시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의 무의지적 속성은 주로 주격어 + 서술어 구조가 갖는 상황 묘사적 특징을 통해 표현된다. 감정은 주체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의지와 능동성이 드러나는 타동 구문보다는 현재의 상황 묘사에 치중하는 자동 구문이 더 유리하다. 무의지적 상황 묘사를 위해 피동사나 ‘어지다’ 결합형 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동시에 이 유형은 많은 경우 객관적 반응을 기술하므로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감정의 강렬함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의 능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목적격어 + 서술어 구조를 사용한다. 특히 ‘얼굴을 붉히다, 애간장을 태우다’ 등은 주체가 의지적으로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적 행동의 양상을 비유적·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타동 구문 형식으로 쓰였다. 이것은 곧 감정 표현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셋째, 감정 표현 관용구는 감정의 내적 진행이나 감정의 외적 표출 상황을 대개 환유적으로 그에 인접한 상황으로 묘사하거나, 은유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 묘사에 적절한 ‘체언 + 용언’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체언만이 중심이 되거나 용언만이 중심이 되어 감정 표현 관용구를 이루기도 한다. 용언만이 중심이 된 예로 ‘뽕 가다’는 ‘마음이 뽕 하고 가다’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부터 출발하여 부사 ‘뽕’이 갖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마음이’를 제외하고도 ‘반하다’라는 전체 의미를 환유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체언만이 중심이 된 예로 ‘깨소금 맛이다’는 유쾌한 맛을 느끼는 상황과 유쾌한 기분을 느끼는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함으로써 맛을 묘사하는 표현을 감정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어떤 상황을 서술하는 데 유리한 구조가 아니므로 빈도상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제까지는 감정 표현 관용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어휘 자체, 또는 어휘의 연쇄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많은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와 더불어 구조가 갖는 의미를 함께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감정 표현 관용구는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앞으로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감정 표현 관용구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 고광주(2000), “관용어의 논항구조와 형성 제약”, 「어문논집」42, 민족어문학회, pp.261-283.
- 권경일(2009),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11, 한국문법교육학회, pp.119-140.
- 김선희(1990), “감정 동사에 관한 고찰”, 「한글」208, 한글학회, pp.65-90.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응모(2002), 「한국어 정서 자동사 낱말발, 세종출판사.
- 김한샘(1999), “현대 국어 관용구의 계량 언어학적 연구”, 연세대 국어정보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기심(1999), “화자의 시점 옮기기와 문법”, 「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출판사.
- 노은희(1999),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국어교육연구」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83-298.
- 도원영·정유남(2008), “용언형 관용구의 문형 정보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26, 한국어의미학회, pp.73-102.
- 목정수(2005),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41, 한국언어학회, pp.75-99.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의미학」12, 한국어의미학회, pp.17-50.
- 박동근(1995),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론적 특성 연구”, 「건국어문학」19,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41, 국어학회, pp.307-355.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53, 한국어교육학회, pp.105-121.
- 박인조(2001), “한국어 감정단어의 분석: 감정단어 목록 마련과 차원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7-1, 한국심리학회, pp.107-123.
- 유현경(2001), “한국어 관용구 사전의 편찬에 대한 연구: 문형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사전편찬학연구」1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221-242.
- 이관규(2002), 「학교문법론」, 월인.

- 이원경(2006),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 분석”, 「담화와 인지」13-1, 담화인지언어학회, pp.163-182.
- 이희자·유현경·김한샘·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진’ 편찬 연구”, 「한국사전학」9, 한국사전학회, pp.99-122.
- 임은하(1998), “감정동사 연구”, 「국어교육」96, 한국어교육학회, pp.317-338.
- 임지룡(2000),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25-4, 한국어학회, pp.693-721.
- 정연주·최석재·정경미·홍종선(2011),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 「한국언어문학」77, 한국언어학회, pp.31-58.
- 최경봉(1992), “국어관용어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선·정연주(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45, 한국어학회.
- Ekman, P., & Friesen(1975), W.V.,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Johnmarshall Reeve(2001),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John Wiley & Sons.
- 정봉교·현성용·윤병수 옮김(2003), 『동기와 정서의 이해』, 박학사.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hracher, H.(1979), "Human Categorization.", In N. Warren, Ed. *Advanc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Searle,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haver, P. and Schwarth, J. Kirson(1987), D. and O’Cornnor, C,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pp.1061-1086.
- Sommerer, C. and Mignonneau, L.(2003), "Mobile Feelings. CODE-The language of our Time", *Ars Electronica*, pp.258-261.

최석재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10-6806-0275

전자우편: lingua@hanmail.net

정연주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8-745)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삼환아파트 10동 904호

전화번호: 010-2397-1497

전자우편: jyj01@chol.com

정경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부

(136-755) 서울시 성북구 돈암1동 삼성아파트 103동 2303호

전화번호: 010-2383-2277

전자우편: ckm74@hanmail.net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2-3290-1969

전자우편: hongjs@korea.ac.kr

원고 접수일: 2011년 07월 16일

원고 수정일: 2011년 08월 15일

계재 확정일: 2011년 08월 23일